

수면 내시경 후 프로포폴 부작용 사망...병원 책임은?

수면 내시경 이후 심정지...결국 사망 1심 “경과 관찰 소홀히 한 과실 있다” “의료사고 방지 위해 나름의 노력해” 책임 80% 제한...“2억3000만원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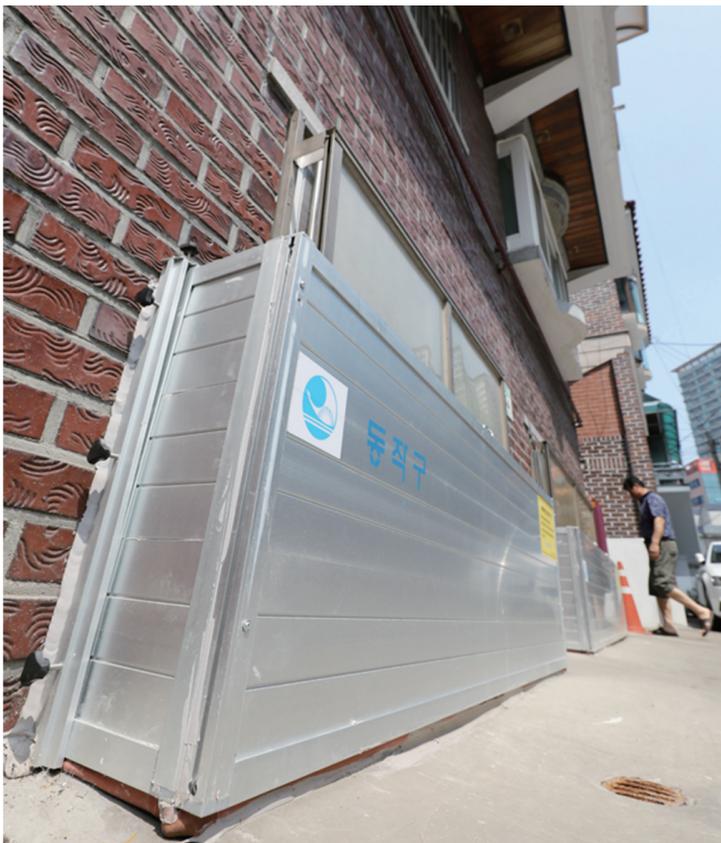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검진자가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병원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1심은 경과 관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9일 서울의 한 병원 종합검진센터에 내원했다.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A씨는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고, 내시경 검사를 위해 평소 복용하던 아스피린의 복용을 일주일간 중단하기도 했다. 담당 의사 B씨는 내시경 검사를 위해 A씨에게 프로포폴 70mg을 투여했으나 A씨가 진정상태에 들지 않자 10mg을 추가로 투여했고, 이후에도 추가 투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도중 A씨의 산소포화도가 88~90%로 저하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B씨는 프로포폴 주입을 잠시 중단하고 A씨를 깨워 산소포화도를 회복시킨 뒤 다시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A씨는 약 20분 만에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로 이동했다. 회복실 담당 간호사는 A씨가 깨어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지 않자 내시경실 간호사를 호출했고, 의료진은 A씨의 얼굴에서 피부가 파래지는 청색증 현상을 확인했다. 심정지 상태로 판단된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직접 사인은 '프로포폴 진정 부작용'으로 추정됐다.

A씨 유족은 B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이 프로포폴 투여와 경과 관찰상의 과실 등으로 인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병원 의료진이 공동으로 A씨 유족 측에게 경과 관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우정)는 지난 4월20일 A씨 유족이 B씨 등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공동으로 A씨 유족에게 총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내시경검사 종료 후 회복 과정에서 A씨의 활력징후나 임상상태

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의 호흡억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용량 및 (투약) 방법을 준수해 프로포폴을 안전하게 투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얼굴에서 청색증 확인 후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혈압성 심장병 등 A씨의 신체적 요인이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의료사고의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B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오유나기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 설치된 주택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주택 단지에서 창문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26일 전국에 올 여름철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23년 미제’ 강간미수 사건, 검·경 DNA 전수조사로 덜미

경찰청·대검, 미제사건 DNA 전수조사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유전자 정보(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대 23년 전 범인을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0명의 혐의를 밝혀 기소하고, 3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25일 경찰 및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성폭력 미제 사건들 DNA를 전수조사해 10명을 기소하고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검찰은 과거 미제 사건 수사 당시 확보한 신원 미상의 DNA와 2010년부터 구축된 DNA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를 대조하는 등 전수 점검을 실시해 미제 사건 범인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DNA데이터베이스란 2010년 7월26일 '다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이 구축해 운영 중

인 유전자 정보 시스템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활용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범인들의 DNA와 대조·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미제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전수조사로 10~23년 전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피의자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교도소 수형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7명에 대해선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3명에 대해선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2004년 5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유인 후 강간한 혐의(성특법 위반 장애인강간)를 받는다. B씨는 2008년 6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협박한 후 사촌동생과 함께 강간한

혐의(성특법 위반 특수강간)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2011년 10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 후 2회 강간해 성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년 뒤인 2013년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1987년 대구고법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 2002년 부산고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2011년 부산고법에서 일명 '진주 연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D씨가 2000년 5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칼로 옆구리를 찌른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음주 단속 피해 경찰관 매달고 운전한 20대 검거

경기 성남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 정차 차량에 잠들어 있던 20대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출동한 경찰을 매달고 운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 1명이 20m가량을 끌려가 허리 등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도로 위 정차 차량에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 접수 후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지시하자 약 1km를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